

## 질검총국 수출입 검역업무 해관으로 통합 예정

### 중국 질검총국 수출입 검역업무, 해관으로 이전

- 지난 3월 7일 제13기 중국전인대 1차 회의에서 국무원기구 개혁 방안에 관한 결정이 표결로 통과됐다.
- 주요 내용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(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),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(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, 이하 질검총국),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(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)을 통폐합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(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)을 신설하며, 특히 질검총국의 수출입 검역(CIQ) 관리책임과 인원을 해관총서(海关总署)로 통합한다는 것이다. (\* 단, 시행시기는 미정)

### 통관일체화제도를 농수산식품 검역업무까지 확대

- 중국 당국이 2017년 7월부터 시행을 시작한 통관일체화(通关一体化) 제도는 통관 절차 간소화를 위해 마련한 해법으로, 지역별 해관의 집행기준이 상이해 통관이 용이한 일부 지역에 업무가 몰리는 문제를 해소하고, 기업의 수출입 통관·운송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각 항구 해관의 통관 수속을 통합화·전산화시킨 제도다.
- 하지만 질검총국 검역절차가 필요한 농수산식품은 여전히 기존 수입항을 통해 통관수속, 세금징수, 물품검역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 통관일체화제도의 효과를 크게 보지 못했다.
- 이번 질검총국 검역업무의 해관 이전으로 통관일체화제도가 농수산식품 검역까지 확대되며, 이로 인해 통관시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.



### 對중국 농수산식품 수출에 미칠 영향

- 통관 및 운송비가 절감될 전망이다, 신설 조직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을 통한 통관 수입화물 사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. 식품의 경우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중국 당국의 처벌 강도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므로, 국내 수출업체의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이다.

참조 : aT KATI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, [시장동향], "질검총국 수출입 검역업무 해관으로 통합 예정" (2018.03.19)